

산악 지형 달리며 장수 매력 만끽 ‘전북형 반할주택’ 유치 쾌거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 3~5일 개최... 70K·팔공산 38K 등 6개 코스 운영

장수군에서 ‘한국의 사모니’를 자랑하는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주)라엔런(대표 김영록)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0K, 38K-P(팔공산), 20K, 5K, 4K-VT, KIDS 등 총 6개 코스로 운영되며, 3일 4K-VT 코스를 시작으로 4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트레일러닝은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 아닌 숲길과 흙길 등 자연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안산과 장수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장수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산악 지형을 따라 달리며 장수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대회 기간 동안 장수종합경기장에 마련된 본 행사장에서는 가족 단



장수군에서 ‘한국의 사모니’를 자랑하는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장수트레일레이스 모습.

위 방문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후원 브랜드 부스도 함께 설치돼 참가

자와 방문객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 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320억원 투입 100세대 건립... 반값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진안군은 군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사업 유치를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안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며,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안을 군상리 909-6번지 일원(대지면적 10,895㎡)에 전용면적 59㎡ 규모의 공동주택 1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 160억 원, 도비 80억 원, 군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과 시공을 맡는다.

진안군은 공모 과정에서 사업의 ‘즉시 실행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업 대상지와 진입도로에 대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을 사전에 100% 확보했으며, 표고와 경사도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입증했다.

해당 부지는 진안을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해 행정·의료·교육·상업시설 접근성이 뛰어나고,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이 용이해 정주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추진 중인 ‘진안 월림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될 경우 주거·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진안을 전반의 거주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으며, 모든 입주민에게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반값 임대료’가 적용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면제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진안군은 향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급 세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근로자 확보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중동전쟁 비상경제 긴급점검회의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 “유가 급등, 세계경제 불안 대응 철저” 강조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과 세계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2일 오전,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 및 시군구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 직후, 군청 내 관련 부서 회의를 주재한 이 권한대행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8개 실과와 함께 회의의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 권한대행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와 주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또한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고물가 부담 완화 및 군민 일상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역물가·쓰레기봉투 재고량 등의 경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진안형 승용차 5부제에 대해서는 공



공기량 차량 2부제 강화와 민간의 자율 참여를 적극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민생경제와 농업인의 농업경영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에 발맞춰 지역경제 위축 및 농가 부담 최소화 등 민생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

무주군이 2일 등나무운동장에서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식을 열고 유소년 축구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차범근 (사)팀자본 이사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참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사)팀자본이 주최하고 풋워크레이이션이 주관하며 무주군과 넥슨, AIA, 아디다스, 코카콜라, 투타정형외과, 아이디스FNB가 후원한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무주초와 중앙초, 실천초, 구천초, 과목초등학교 학생 73명 참여한다. 교육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

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전문 지도자들이 체계적인 경기 지도를 맡는다.

참여 학생들은 자체 리그 경기에도 참가해 실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학생들이 축구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방과 후 생활을 즐기길 바란다”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범근 이사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된다”며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스포츠 경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1498농가 대상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육묘상 처리제 지원에 나섰다.

군은 관내 1,498농가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 처리제’ 8,000봉을 공급할 계획이다.

벼 육묘상 처리제는 벼피 과중 시 처리하거나 이앙 전 모판에 살포하면 약효가 지속돼 생육 초기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깨씨무늬병과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잎도열병, 애벌레 등 주요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대 사용이 간편하고 방제 비용이 낮아 고효율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중동 정세 대응 시설원에 농가 현장 방문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지난 1일 마령면에 위치한 시설 딸기 재배 농가를 방문해 중동 정세에 따른 농가 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육묘비와 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 농가는 현재 비축해 둔 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육묘비 등 전반적인 농자재 가격 상승의 부담을

지역 소식통

장수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장수군은 지주제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5월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3월 말 기준 총 체납액 19억7,200만원 중 33.1%에 해당하는 6억5,3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 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납세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납부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개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용성을 높여겠다는 취지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제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단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차량 변호관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군민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청 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